

##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첫 지문으로는 비문학 기술 지문이 나왔네? 사진도 있고, 그림 문제도 15번에 보이는데. 6월 모평에서도 강조했지만 문제를 한 번 먼저 보고 지문에 들어가면 독해할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부터 먼저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아. 그림 문제를 한 번 먼저 보도록 하자.

13. <보기>가 위 글의 집필 지침이라고 할 때,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 ㉠. 실생활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
- ㉡. 해당 기술의 개념을 제시할 것
- ㉢.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활용할 것
- ㉣. 기술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소개할 것
- ㉤.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울 것

① ㉠      ② ㉡      ③ ㉢      ④ ㉣      ⑤ ㉤

첫 문제로 또다시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 다만 보기를 넣어서 조금 다른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해놓았을 뿐이야. 보기가 나와있기는 하지만 사실 기억 나온 디그 등을 빼고 보기를 없앤 뒤에 1. ~ 2. ~ 이런 식으로 낸 문제와 아무 차이가 없어. 따라서 푸는 방법도 달라질 필요가 없겠지? 핵심표현만 눈에 익혀두자. 실생활, 해당 기술의 개념, 그림, 문제점 앤드 해결 방법, 사례 제시 이렇게 말이지. 그리고 이런 유형은 항상 한 문단이 끝나고 이 문제로 돌아와서 읽지 않은 보기를 소개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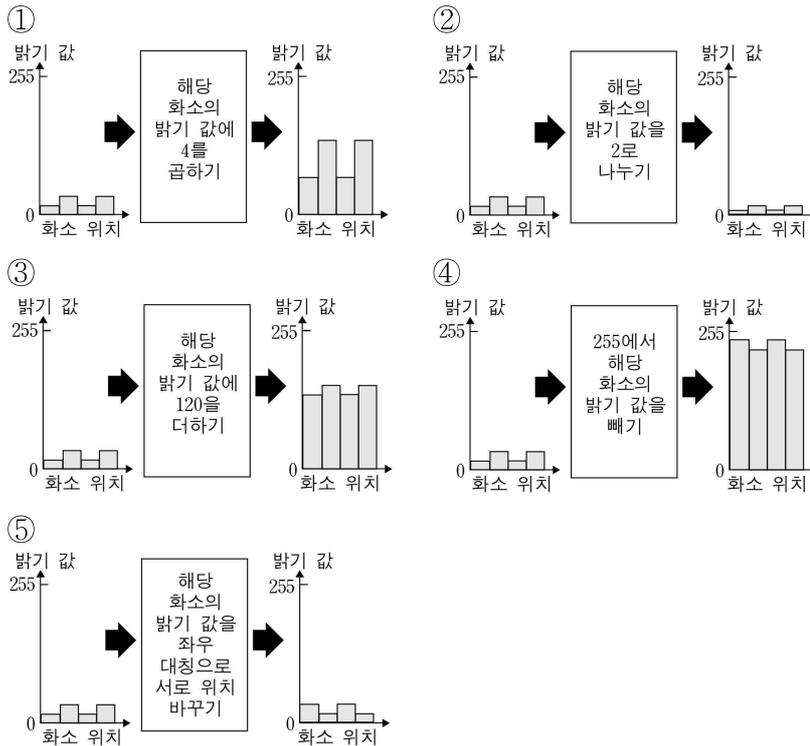
14. ㉠의 내용으로 보아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 ① 독사진의 디지털 영상에 손질을 가하여 친구들과 함께 찍은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 ② 과일 바구니를 촬영한 디지털 영상에서 과일을 방금 딴 것처럼 싱싱해 보이도록 하였다.
- ③ 촬영하다가 손 떨림으로 인해 흐려진 디지털 영상에서 번짐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였다.
- ④ 팩시밀리에서 문서를 디지털 영상으로 바꾸어 전송한 다음, 다른 팩시밀리에서 출력되도록 하였다.
- ⑤ 오래된 사진을 디지털 영상으로 바꾼 다음, 변색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을 없애서 최근에 촬영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주어진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야 하는 문제야. 기존의 ㉠, ㉡가 나오는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워진거지. 약간의 변형이 있기는 하지만 푸는 방법은 역시 같아. 밑줄쳐진 부분의 앞뒤를 읽고 바

로 14번 문제를 풀어주는 거지!

15.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을 수행하는 과정에 가장 적합한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을 나타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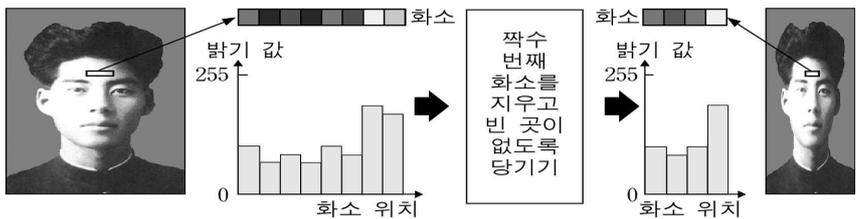
그래프 문제야. 과학, 기술, 경제 지문에서의 그래프 문제는 주어진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에  
만 쉽게 풀려. 따라서 우리는 나중에 해당되는 수행 과정이 무엇인지? 각 보기의 그림들이 어떤 특징  
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데 초안점을 두어야겠지? 이 문제도 밑줄 쳐진 부분의 앞뒤를 읽고 돌아와서 문  
제를 풀어주도록 하자.

누구나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꿈은 적어  
도 디지털 사진 속에서라면 쉽게 이를 수 있다.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실제 모습보다 날씬해 보이도록 할 수도 있고 주근깨를 지워서 달리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은 대부분 디지털 영상 처리라는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디지털 영  
상 처리라는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서 날씬해보이게 한다느니 주근깨를 지운다느니 하는 예시를 들  
었어. 13번 문제의 □ 보기는 글에 반영된 것인지? 또한 이런 예시들은 실생활에서 비롯된 것이  
잖아? ◻ 보기도 1문단에 반영이 되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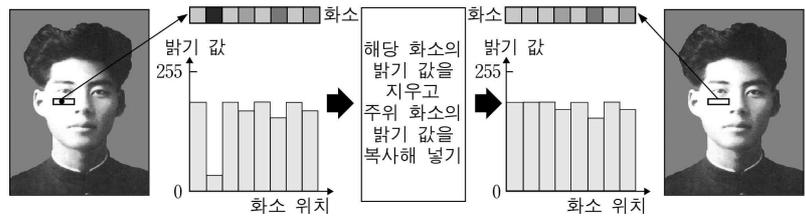
**(기억 나왔나 focus!!)**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컴퓨터 안에서 영상을 구성하  
는 점인 수많은 화소의 집합으로 저장되고, 각각의 화소는 숫자로 표현된 밝기 값과  
색상 값을 가진다. ㉠ 일반적으로 디지털 영상 처리란 각 화소의 밝기 값과 색상 값  
에 일정한 규칙을 적용하여 영상의 밝기와 색상은 물론 크기, 모양, 질감까지도 변화  
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아직 나는 감이 잘 안 오네... 좀 더 읽고 14번을 풀어보도록 하자.)**

다만 13번의  $n$  보기도 글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밑줄쳐진 부분이 디지털 영상 처리의 개념을 제시한 것이잖아.)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8비트 해상도, 즉 0부터 255까지의 밝기 값만 가지는 흑백 영상이 있다고 하자.(이 부분도 예시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이때 밝기 값 0은 완전한 검은색이고 255는 완전한 흰색이 된다. 날씬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영상의 세로는 그대로 두고 가로를 1/2 크기로 줄이려면 <그림 1>과 같이 홀수 번째 화소는 그대로 두고 짝수 번째 화소를 없앤 다음, 빈 곳이 없도록 왼쪽으로 당기면 된다. 또 검은 점으로 표시된 주근깨를 지우고 싶다면 <그림 2>와 같이 해당 화소의 밝기 값을 지우고, 지운 자리에 주위에 있는 화소의 밝기 값을 복사해 넣는다. 이렇게 하면 주위 화소와 차이가 나던 검은 점이 주위와 똑같은 밝기 값을 가지게 되어 주근깨가 없어진다.(그림 나왔네. 13번에  $n$  보기도 옳아. 따라서 아닌 것은 4번  $n$ 이 되겠네. 이제 14번을 보자. 지금 이 상황에서 1번 보기는 잘 모르겠으니 일단 ?표시, 2번 보기는 옳지? 화소 변환을 통해 질감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했잖아. 3번 보기도 옳아. 화소의 밝기 값을 조금 더 선명하게 조절해 주면 되기 때문이지. 4번 보기는 아닌 것 같지? 문세가 디지털화 되는 현상이 디지털 영상 처리가 아니잖아. 하지만 아직 ?표시된 게 있으니까 답이라고 단정하지는 말고. 5번도 맞는 설명이야. 5번 보기와 같은 작업도 디지털 영상 처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이잖아.)



<그림 1>



<그림 2>

디지털 영상 처리는 간단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영상에 있는 붉은색 사과를 초록색으로 칠하고 싶다면 사과에 해당하는 모든 화소에서 밝기 값은 그대로 두고 붉은색 색상 값을 초록색 색상 값으로 바꿔주면 된다. 뱀의 영상에 머리를 하나 더 달아서 머리가 두 개인 괴물 뱀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머리를 추가하고 싶은 부분에 해당하는 화소의 밝기 값과 색상 값을 지운 다음, 원래 영상에서 뱀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화소의 밝기 값과 색상 값을 복사해 넣으면 된다.(아아. 뱀머리 붙인 것과 마찬가지로 14번의 1번 보기도 해결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답은 확실히 4번으로 결정^^)

디지털 영상 처리는 군사 목적에서 과학 수사에까지 다양한 분야에 널리 적용된다. ㉠ 첩보 위성이 찍은 어떤 영상은 화소의 밝기 값이 0에 가까워 어둡고, 밝기 값의 차이가 별로 없어 선명하지도 않지만, 이 기술을 적용하면 밝고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과학 수사 요원이 범인의 희미한 지문만을 채취하고도 화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이 기술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가 일반화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위·변조 등을 방지하는 일은 앞으로 남겨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기술의 문제점은 언급이 되었어. 하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지? 따라서 13번의 ㄴ이 부합하지 않는 선지라는 것도 확실해졌어.)

(15번을 보자 ㄴ의 기술은 밝기 값을 선명하게 만드는 거지? 그렇다면 화소 위치에 따라 오선 밝기 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와야겠네? 일단 2번 5번은 아옷. 120을 더한다 해도 차이가 뚜렷해지는 것은 아니지? 3번도 아옷. 255에서 해당 값을 빼다보면 화소 위치에 따른 밝기 값의 대소관계가 달라지지않아. 이것은 원형의 왜곡에 해당되지.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데야.)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번에는 비문학 인문 지문이 출제되었어. 사실 과학, 기술, 경제, 언어 지문이 아닌 것은 특별히 갈래로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어. 그냥 지극히 일반적인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자. 이전 문제 배열 순서가 대강 감이 오지 않니? 3문제짜리를 기본으로 나뉘는다면.. 아마 어휘, 어법 문제가???

16.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역사는 역명의 대중이 이끄는 것이다.
- ② 역사는 현재의 세계를 목적으로 하여 진보해 온 과정이다.
- ③ 역사는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역사는 우연의 지배를 받으므로 필연적인 인과 관계로 파악되지 않는다.
- ⑤ 역사는 과거의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후대에 체계화된 지적 구성물이다.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은 그럴 듯하게 포장해 놓았지만 우리가 아는 비문학 지문 첫 번째 문제의 유형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문제야. 선지의 핵심만 훑자, 1번은 역사-역명의 대중이 이끄는 2번은 현재의 세계를 목적으로 한 진보과정 3번은 역사의 객관성이 과학이 될수도? 4번은 역사 - not 인과관계 5번은 역사는 not just 사실 but 후대의 구성물이다. 이정도로 정리해둬자.

17. ㉠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마을에 있는 효자비를 재정비하여 효행을 선양한다.
- ② 국민에게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을 지폐 도안에 활용한다.
- ③ 역사 소설을 읽고 실재한 사실과 문학적 허구를 가려 본다.
- ④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를 지정하여 고유의 문화를 보존한다.

⑤ 전쟁 박물관의 전시를 통해 국난 극복의 역사를 널리 알린다.

㉠의 사례가 먼저 나온다. 전형적인 영태지 이 문제도? 밑줄쳐진 부분의 전후를 독해하고 바로 17번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도록 하자.

18. <보기>는 역사 동아리 학생들이 위 글을 읽은 후 토론한 내용이다. <보기>에서 위 글의 논지에 부합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영웅에 대한 각 시대의 평가는 곧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야.

ㄴ. 영웅을 만들어 유포하는 체제는 결코 좋은 체제가 아닌 것 같아.

ㄷ. 근대 국가의 집단 정체성 형성에 애국적 영웅이 중요한 역할을 했군.

ㄹ. 영웅의 고난과 승리는 대중에게 강력한 정서적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도 16번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야. 글 전체의 내용을 필요로 하는 문제. 따라서 한 문단씩 독해한 뒤 아닌 선지를 소개해주도록 하자.

19.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사람의 생활이나 일의 진행이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함.  
 ② ㉡: 본을 받을 만한 대상.  
 ③ ㉢: 근본까지 깊이 캐어 들어가 연구함.  
 ④ ㉣: 사물의 겉과 속 또는 안과 밖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⑤ ㉤: 가장 높은 위.

역시나 어휘 문제가 나왔네. 일반적으로는 제일 늦게 푸는 게 맞는데, 뜻풀이 문제는 약간의 예외에 해당돼. 왜냐하면 단어 대신에 이 뜻풀이한 것을 대입해 보아서 어색한지 아닌지를 판별해내기만 해도 이 문제의 답을 골라낼 수 있거든. 따라서 이 부분이 나오면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자.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신비화되고 통속화되는가, 영웅에 대한 기억이 시대에 따라 어떤 변천을 겪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더 사실에 가까운 영웅’의 모습에 다가서려는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영웅을 둘러싼 신화가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특히 국민 정체성 형성에 그들이 간여한 바를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영웅을 만들고 그들의 초상을 새롭게 덧칠해 온 각 시대의 서로 다른 욕망을 읽어 내어 그 시대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획득한다. (각 시대에 따라 영

을 만들고 그 시대의 욕망에 따라 새로 덧칠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 시대의 욕망이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16번이 만약에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발문이 나왔다면 한 문단을 읽고 소거를 하러 16번으로 가야해. 하지만 여기는 옳은 것을 고르는 발문이 나왔지? 따라서 16번 문제는 지문을 끝까지 다 읽고 풀어야 함을 알 수 있어.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면 쉽게 풀 수 있겠지. 여기서도 '각 시대의 욕망을 반영하는 영웅의 모습' 이 중심 내용이 되겠네. 그렇다면 18번을 보도록 하자. ㄱ보기는 옳지? 각 시대에 따라 영웅의 모습이 달라진다잖아. 따라서 평가가 이뤄진 시대에 어떤 가치가 중시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지. 2번, 5번 보기 out)

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 파란만장한( '극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한' 이라고 바꿔도 어색하지 않지? 19번의 1번은 옳은 뜻풀이야.)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역사 자체는 후대인들의 기억 혹은 잔상에 의해 평가된다는 내용이지) 잔 다르크는 계몽주의 시대에는 '신비와 경건'을 가장한 바보 처녀'로 치부되었지만, 프랑스 혁명기와 나폴레옹 집권기에 와서는 애국의 ㉢ 화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일단 이 부분은 '예시' 의 방법이 쓰였어. 뜻풀이 보자 애국의 본을 받을 만한 대상으로 추앙 받는다? 애국의 본을 받을 만한? 조금 어색하지? 2번은 옳지 않은 뜻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단정짓는 말고 그렇다고 소개하지도 말고 넘어가도록 하자.) 민족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그 숭배의 열기가 더 달아올라, 19세기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잔을 '프랑스의 수호자'이자 '민중의 딸'로 재창조했다. 국경을 넘어 20세기 여성 참정권자들에게 잔은 '전투적 페미니즘'의 상징이었고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유관순 열사'로 기억되었다. (이 부분에서 18번 문제 중 소개해야 할 내용은 아쉽지만 없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자)

(17번 풀 준비!!) 영웅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 추구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근본까지 깊이 들어가 연구하는 문제의식의 배경' 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지? 19번의 3번 보기도 바른 뜻풀이야.)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 '기억의 관리'가 부와 권력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간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이다. 동시에 이는 기억과 ㉤ 표리 ( '사물의 겉과 속 관계인' 맞는 표현이지?)관계인 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 17번 문제로 고고상 사회 집단 전체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선지를 찾으려 하지? 1번은 옳은 사례야. 비석을 통해 사람들에서 '호'를 권장하잖아. 2번도 지폐도안을 통해 사회 전체에 존경심을 키워줘. 3번은 틀렸지? 사실과 허구를 가리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사회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야. 문화재 지정 역시 사회 구성원의 기억에 남게 하며 특히 후대에도 전승되게 하지. 또한 전쟁박물관 역시 사람들에게 극복했다는 몽글한 마음을 안겨줘. 4,5번 모두 기억에 포함하는 사례야)

근대 역사에서 기억이 구성되고 가공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위는 '민족'이었다. 근대 역사학 자체의 탄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족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영웅

은 중요한 기억의 터전을 차지해 왔다. 이때 영웅은 그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육화된 기호로서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나타난다. (영웅을 통해서 민족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문단이야. 18번의 큰 보기가 이에 해당하지? 따라서 큰 단 논지에 부합하는 선지야 1번 소개하자 )

이때 영웅은 종종 '애국'의 덕목과 결부되었다. 한국에서도 봉건 시대에 충군의 이념에 충실했던 인물이 계몽 운동기에 들어서 구국의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박은식, 신채호 등 개화기 지식인들이 '민족정신'에 눈뜨면서 재발견한 이순신이나 을지문덕과 같은 영웅은 이제 '충군'이 아닌 '애국'을 ㉠ 지상 ( '가장 높은 위의 과제' 라고 해도 문맥상 어색하지 않지? 따라서 옳은 뜻풀이야.) 과제로 삼는다. 이 같은 근대의 영웅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묶어 주는 상상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영웅은 구성원 모두를 상하, 수평 관계 속에서 매개하고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미디어였다. (18번에 큰 보기도 옳네? 을지문덕과 같은 영웅이 국가의 집단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잖아. 그러나 영웅을 옹호하는 체제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보이지 않지? 따라서 18번의 답은 4번이 되는거야.)

(이제 16번을 풀어보도록 하자. 위 글은 처음부터 계속 영웅이 후대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을지문덕이라든가, 잔다르크라든가 예시도 나왔잖아.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단순한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가공한 지적 구성물이 역사라는 것이 글쓴이가 하고싶은 말이야. 1,2,3,4번 선지는 모두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야.)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교적 난이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고전소설 지문이 나왔어. 소설은 인물간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글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리고 지엄적인 보기가 나오면 다시 그 부분을 본문에서 찾아 내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문제, 특히 첫 번째 문제에서 많이 묻는데 아무튼 문제를 보면서 지엄적 보기는 반드시 미리 확인을 해두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

20. 위 글에 나타난 당대의 사회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자라도 죄를 지으면 스스로 형벌을 받아야 했다.
- ② 아이들이 신문물과 치장거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 ③ 관가에서 부담 없이 곡식을 빌려 주는 제도가 있었다.
- ④ 황금만능 풍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널리 퍼져 있었다.
- ⑤ 노동을 통해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당대의 사회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글 전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야. 다만 비문학과 다른 점은 소설은 문단을 나누기가 어렵다는 점이지. 따라서 일단 보기를 한 번 짚아 읽어보고 보기의 핵심을 자신만의 언어 혹은 간단한 키워드로 정리해둘 것,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본문을 독해할 때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을거야. 문제가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지? 이 경우에는 소개법이 잘 통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머지 오답인 보기 나개가 글의 내용에 배치되는 선지일 수도 있지만, 아예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거든. 따라서 부분을 나눠서 조금 읽다가 문제로 와서 지우고 하는 식의 방법보다는 전체 소설을 다 읽고 이 문제는 푸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일거야.

21. [A]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선의 빠른 이동을 통하여 긴장을 조성한다.
- ②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중첩하여 리듬감을 살린다.
- ③ 신체 부위를 소재로 하여 해학적 효과를 자아낸다.
- ④ 실현되기 어려운 일들을 열거하여 궁한 신세를 드러낸다.
- ⑤ 관용 표현을 이용하여 주인공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런 문제는 이제 그 부분 나오면 바로 풀어야 된다는 것 알지? 지엽적 보기가 2개나 있네? 신체 부위 - 해학적 효과 하고 관용표현 물론 사람에게 따라서는 열거도 지엽적 보기가 될 수도 있겠네. 아무튼 이런 지엽적 보기들은 반드시 숙지해둘 것!!

22. <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판소리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얼핏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작품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 말이나 행동에 여러 층위의 심리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나의 상황에 서로 다른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양상을 읽어내는 것은 판소리계 소설의 문학성을 이해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 ① ㉠: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린 시아주버니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가 함께 나타난다.
- ② ㉡: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마음과 가장 노릇을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얽혀 있다.
- ③ ㉢: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 걱정하는 마음과 형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함께 나타난다.
- ④ ㉣: 남편이 매 맞으러 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나타난다.
- ⑤ ㉤: 철없이 행동하는 자식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과 그들을 어떻게든 건사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함께 나타난다.

이 문제는 지금 보기를 먼저 읽어두자. 보기의 내용은 하나의 상황에 인물이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지? 이것 알았으니, 밑줄 쳐진 부분이 나오면 전후를 읽고 바로 소개법을 사용할 것.

23. [B]의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성어는? [1점]

- ① 동가홍상(同價紅裳)                      ② 동문서답(東問西答)
- ③ 동병상련(同病相憐)                    ④ 동분서주(東奔西走)
- ⑤ 동상이몽(同床異夢)

구지 언급하지 않겠다. 아까처럼 뜻풀이 문제가 아니라면 항상 마지막에 푸는 것이 유용한 어휘 어법 문제.

홍보 아내 그 말 듣고,

“애고, 이게 웬 말인가? 그런대도 내가 알고 저런대도 내가 압네.”(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지? 리듬감이 느껴지지 이 부분에서?)

섰다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 쿵쿵 발 구르며 하는 말이, (심리 - 안타까움, 억울)

㉠ “시아자씨도 야속하다. 재물만 생각하고 형제 윤기 저버리니 이런 법도 또 있는가. 무거불측 목공이도 이에서 더할손가. 무궁무진 나의 설움 생각하니 측량없다. 애고애고, 내 일이야.” (22번으로 가자. 도와주지 않는 놀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 모두 느껴지지 따라서 1번 보기는 옳은 선지야.)

홍보 듣고 비감하여,

㉡ “이 울음 그만 우소. 속이 매워 못 들겠네. 우리가 곤궁함은 모두 장부의 허물이라. 부끄럽기 측량없네. 우리도 설마 때를 만나 귀히 될 제 있을 테니 설위 말고 살아 보세.”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아내에 대한 이해 모두 드러나므로(이해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지 않겠지.) 22번에 2번 보기도 옳은 설명이야.)

이날부터 홍보 품을 팔 제, 상하 평전 지심 매기, 전세 대동 방아 찧기, 북경 장사 편지 전하기, 상부군의 대상 매고, 이집 저집 나래 엮기, 낡은 집에 토담 쌓고, 새집 짓고 왕토하기, 한 말 두 말 마질하고, 여각 주인 말짐 싣기, 오 푼 받고 마칠 걸고, 두 푼 받고 쥐구멍 막기, 닷 냥 받고 송장 치기, 날로 벌고 달로 벌어 아무리 극력으로 벌어도(오 또다시 드러난 리듬감 나. 4조로 딱딱 떨어지지?) 여러 식구 살릴 일이 전혀 없어 곤궁으로 지내더니, 하루는 홍보가,

“내 갓맛진 두루마기 내오소. 오늘날은 읍내를 잠깐 들어갈 수밖에는 수가 없네.”

“읍내는 무엇하러 가랴시오?”

“환곡(還穀) 호방(戶房)과 집안끼리 아는 사이니 쌀섬이나 타다 먹세.”

“그것 무슨 말씀이오? 환곡미는 국곡(國穀)인데, 먹을 때는 좋다 하고 갚을 때는 어찌 갚게?”

㉢ “여보소, 그 말 마소. 갚다 갚다 못 갚으면 몽둥이 서넛 맞기로 관계있다. 형님께로 떠넘기세.” (대체가 없는 홍보의 이 대사에서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걱정과 그래도 영님께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여. 따라서 22번에 3번 보기도 옳군.)

(중략)

“먹고 노니 좋소마는 그 돈이 웬 돈이오?”

“자네 이 말을 천기누설 하지 마소. 읍내를 가서 환곡 호방을 보았더니 나를 보고,

“병영으로 매품 팔러 가려고?” 하기에, 돈 삼십 냥 받고 별도로 마삿 닷 냥까지 받아 왔네.”

홍보 아내 이 말 듣고,

㉔ “애고, 이게 웬 말이오. ‘하늘은 복록이 없는 사람은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키우지 않는다.’고 하옵나니, 모진 목숨 사는 대로 살 것이지 남의 죄로 매 맞을까. 마오 마오, 가지 마오.” (홍보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할 수 밖에 없는 자신들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 남편이 매 맞으러 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지. 따라서 4번은 틀린 서술이야.)

홍보 하는 말이,

“어허, 그거 방정이로고. 볼기 놀려 쓸 데 있다.”

“그러하면 볼기가 다 구실이 있소?”

[A]

“내 이를 테니 들어보소. 삼정승 하였으니 평교자에 앉아 볼까. 육조 판서 하였으니 초헌 위에 앉아 볼까. 양국대장 하였으니 장대(將臺) 위에 앉아 볼까. 팔도 방백 하였으니 선화당에 앉아 볼까. 각읍 수령 하였으니 동헌 좌기 하여볼까. 좌수별감 하였으니 행사당에 앉아 볼까. 이방 호장 하였으니 각청 수석 앉아 볼까. (여기서도 리듬감이 보이지?) 장안 일색 명기 되어 승교 위에 앉아 볼까. 만금 거래 상고 되어 부담마에 앉아 볼까. 이내 몸 궁곤한데 매품이나 팔아먹지 볼기 놀려 쓸 데 있다. 자네 내 말 들어 보소. 그 돈 삼십 냥 벌어들여 착한 사람 맡겨 두면 이리저리 늘리어서 큰 아들은 장가들이고 티끌 모아 태산으로 그렇저렇 살아 보세.” (2번 문제로 가자. 시선의 빠른 이동이 느껴지니? 여기서 시선의 이동은 보이지 않지? 홍보가 단순히 엉덩이가 쓸 데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 열거한 것에 불과해. 따라서 1번이 틀린 서술이야. 동일한 문장구조가 중첩되어 리듬감 살린 것이 빨간 괄호 앞쪽에 보이고, 신체 부위인 엉덩이를 소재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으니 3번도 옳고, 정승이니 판서니 불가능한 것들이지? 궁한 신세를 반증하는 것들이야. 4번도 옳아. 관용 표현으로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쓰였어. 5번도 옳은 서술이야.)

홍보 자식들이 이 말 듣고 별 때 되듯 하더니만,

“허허 아버지. 그 돈 많이 받거들랑 풍안(風眼)\* 한 벌 사다 주오.”

“이 자식, 풍안 무엇하려느냐?”

그놈 하는 말이,

“부자간이라도 속을 몰라주니 답답하지요. 이월 동풍 부는 때에 뒷간 출입 다니려면 못사람의 발길에 눈에 티가 들어 다닐 수 없어 그리하지요.”

또 한 놈이 나왔더니,

“아버지, 나는 송아지 한 마리 사다 주오.”

홍보 좋아라고,

[B]

“기특한 내 아들이야. 장래 살림은 잘하겠구나. 송아지는 무엇 할래?”

“한 마리만 사다 주면 모닥불에 구워 먹게요.”

“어 그놈, 허망한 놈이로고. 저리 가거라.”

또 한 놈이 썩 나오며,

“아부지, 나일랑은 양피 조끼에 통대모 장도(粧刀) 비단 꽃신 한 벌 사다 주오.”

“네 이 자식, 대모 장도 언다 찰래?”

“찰 데 없으면 갈비 뚫어 차지요.”(철없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갈비 뚫어 찬다는 데서는  
애학적인 면도 드러나네.)

홍보 아내 곁에 섰다 여러 자식들을 호통하여 물리치니, 홍보 하는 말이,

㉠ “요런 몹쓸 일도 있는가. 개암쪽 만한 불기짜에 그새에 시장판을 벌였구나. 그  
만두어라. 많이 사다 주마.” (이런 철없는 자식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 그리고 가장으로서 책  
임감을 다하겠다는 심리가 엿보이지? 22번에 5번 서술도 따라서 참이야.)

- 작자 미상, 「박홍보전」 -

\* 풍안: 바람과 티끌을 막으려고 쓰는 안경.

이제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1번 보기는 틀렸지? 아까 홍보가 매품팔러 간다고 했잖아. 2번  
보기는 옳아. 양피 조끼에 통대모 장도 하는 데서 아이들이 신문물과 치장거리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잖아. 3번 보기는 틀렸어. 홍보 아내가 아까 걱정하는 말을 했던 거 기억나지? 4번은 지문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옳지 않아. 노동을 통해서 빈부 격차가 해소된다면 홍보가 구지 매품 팔  
생각을 안했겠지 따라서 5번 보기도 틀렸어. 정답은 2번

이제 마지막으로 사자성어 문제!! B의 상황은 송아지라는 같은 대상을 보고 홍보는 장래를 준비한다  
고 기특해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구워먹기 위해서였지? 이런 상황을 ‘동상이몽’ 이라고 하잖아. 같  
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고, 나머지 사자성어들도 모두 뜻을 찾아서 개별적으로 공부해두  
도록 해 또 언제 나올 지 모르니까 말이야. 아무튼 23번의 정답은 5번!!!

-----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문학 예술 지문이 출제되었네? 문제가 나뉘니까 아마 또 어휘, 어법 문제가 들어 있을 거라는 생  
각이 드네. 예술 지문에서도 간혹 본문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거나 문제에 시각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가 많은데 여기서는 없네. 만약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시각 자료를 완벽하게 이  
해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해. 그럼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자.

24. 위 글에 나타난 ‘바쟁’의 생각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조형 예술의 역사에는 ‘미라 콤플렉스’가 내재되어 있다.
- ② 영화는 회화나 사진보다 재현의 완성도가 높은 예술이다.

- ③ 영화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예술이다.
- ④ 영화는 현실의 풍부함과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술이다.
- ⑤ 사진은 회화가 표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비문학에서 첫 문제의 유형은 대부분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요해. 여기서도 그나마 '바쟁의 생각' 이라고 대상을 좁혀주었네? 아무튼 비문학에서는 문단이 하나 끝나면 이 문제로 돌아와서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소개해주어야 해. 발문도 읽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니 당근 소개법을 써야 겠지?

25. ㉠~㉡ 중 문맥상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이건 글을 읽으면서 본문 옆에 작은 글씨로 기록해둬.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을거야.

26. 위 글에 동조하는 감독이 영화를 제작하였다. 이 영화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집을 자제하고 있구나.
- ② 현실을 대하는 것 같은 공간적 깊이감을 보여주는구나.
- ③ 대상을 왜곡할 수 있는 기교를 배제하려고 노력하는구나.
- ④ 숏의 길이를 길게 하여 현실의 시간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구나.
- ⑤ 화면 속의 중심 요소에 주목하게 하여 관객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구나.

위 글에 동조한다... 란 말은 위 글이 무언가를 주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네? 예를 들자면 영화를 제작 할 때는 어떠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럼 이런 부분이 나올 때에 이 문제로 넘어와서 하나하나 보기를 소개해주자.

27.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단어의 구성이 ㉠와 같은 것은?

—<보 기>—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말이다. 어근에는 여러 가지 품사의 말이 쓰일 수 있다. 가령 '가위질'은 접미사 '-질'이 명사 어근 '가위'에 붙은 말이고, '헛디디다'는 접두사 '헛-'이 동사 어근 '디디-'에, '새까맣다'는 접두사 '새-'가 형용사 어근 '까맣-'에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 ① 길이                      ② 기쁨                      ③ 털보
- ④ 오뎅이                    ⑤ 달리기

어법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제일 마지막에 풀어주는 센스 ㅋ

영화의 역사는 신기한 눈요깃거리라는 출발점을 지나 예술적 가능성을 실험하며 고유의 표현 수단을 발굴해 온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미학적 차원의 논쟁과 실천이 거듭되었다. 그 중 리얼리즘 미학의 확립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 프랑스 영화 비

평가 바쟁이 있다. (‘바쟁 - 리얼리즘 미학의 확립’이라는 것이 첫 문단의 내용이구나. 아직 24번을 풀 수 있는 힌트는 주어지지 않아.)

바쟁은 ‘미라 콤플렉스’와 관련하여 조형 예술의 역사를 설명한다. 고대 이집트 인이 만든 미라에는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길이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이 깃들어 있거니와, 그러한 ‘복제의 욕망’은 회화를 비롯한 조형 예술에도 강력한 힘으로 작용해 왔다고 한다. 그 욕망은 르네상스 시대 이전까지 작가의 자기표현 의지와 일정한 균형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원근법이 등장하여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성큼 다가서면서 회화의 관심은 복제의 욕망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그 상황은 사진이 발명되면서 다시 한 번 크게 바뀌었다.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한 채 대상을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사진이 발휘하는 모사의 신뢰도는 회화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사진으로 인해 조형 예술은 비로소 복제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회화의 실제적인 복제의 욕망의 정도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알 수 있어. 24번 문제로 가 볼까? 1번 보기에서처럼 ‘미라 콤플렉스’가 조형 예술의 역사를 설명한다고 첫 문장에 나와있잖아. 또한 사진이 현실을 복제하는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회화가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마지막 문장에 나와있지? 5번도 읽은 설명이야 소개해)

영화의 등장은 대상의 재현에 또 다른 획을 그었다. 바쟁은 영화를, 사진의 기술적 객관성을 시간 속에서 완성함으로써 대상의 ㉠ 살아 숨 쉬는 재현(영화 속 현실) 가능케 한 진일보한 예술로 본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재현이 가능해진 결과, ㉡ 더욱 닳은 지문(指紋) 같은 현실(영화 속 현실) 제공하게 되었다. 바쟁에 의하면 영화와 현실은 본질적으로 친화력을 지닌다. 영화는 현실을 시간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 현실의 연장이며(영화 속 현실), 현실의 숨은 의미를 드러내고 현실에 밀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정수이다. 영화의 이러한 리얼리즘적 본질은 그 자체로 심리적, 기술적, 미학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24번에 2번 보자. 바쟁은 두 번째 문장에서 영화가 사진이나 회화보다 진일보한 예술로 보았지? 따라서 2번도 읽은 보기니까 소개하자)

바쟁은 형식주의적 기교가 현실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침해하여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 현실의 참모습(이건 진짜 현실) 변조하는 과도한 편집 기법보다는 단일한 숫\*을 길게 촬영하는 롱 테이크 기법을 지지한다. 그것이 사건의 공간적 단일성을 존중하고 ㉤ 현실적 사건(영화 속 현실 따라서 25번에 담은 4번)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전경에서 배경에 이르기까지 공간적 깊이를 제공하는 촬영을 지지한다. 화면 속에 여러 층을 형성하여 모든 요소를 균등하게 드러냄으로써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관객의 시선에도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간적 깊이를 제공한다느니, 현실의 진실하게 반영한다느니 모두 24번의 4번 보기에 포함하는 내용이야. 따라서 4번도 소개. 또한 바쟁이 생각하는 영화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도 대충 눈에 들어오지? 나중에 26번을 풀 때 계속 얘기하자.)

영화는 현실을 겸손한 자세로 따라가면서 해석의 개방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 민

음, 이것이 바쟁이 내건 영화관의 핵심에 놓여 있다. 그 관점은 수많은 형식적 기교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많은 지지를 얻으며 영화적 실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결국 영화는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군. 따라서 24번에 3번이 확실하게 틀린 설명이지?)**

\* 숫: 카메라가 한 번 촬영하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연속된 한 화면 단위.

26번 문제로 가자. 편집을 자제하고, 공간적 깊이감도 보여주고, 대상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롱 테이크를 통해 현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모두 바쟁이 생각한 영화의 조건이지? 그러나 5번 보기에서처럼 중심 요소에 관객의 시선을 고정시키려 하지는 않아. 모든 요소를 균등하게 반영해야 현실감이 느껴진다고 했자나. 따라서 답은 5번

이제 어법 문제를 풀어볼까? 보기는 어근+접사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어근은 동사이지?

1번은 어근이 형용사라서 엑스 형태는 맞아.

2번도 1번과 같은이유로 엑스

3번은 어근이 명사라서 엑스

4번은 형용사 어근이 쓰여서 엑스

따라서 답은 동사 어근 달리-가 쓰이고 접사 -기 가 쓰인 5번이 정답이야.

[28~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시 세트 문제가 출제되었다. 시는 한 시를 먼저 읽고 그 시에 해당되는 문제는 모조리 미리 정오를 표시해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이지. 특히 이번과 같이 6문제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 다시 시로 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가 되겠지? 비문학과 마찬가지로 시 문제도 전형적 특징을 가진 문제들이 존재해.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다거나, 시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 보기를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 등등. 자 그럼 이제 문제부터 보도록 하자. 아참, 시는 가능하면 짧고 이해하기 쉬운 시부터 먼저 읽는 것이 문제 풀는데 도움이 될거야. 만약 내가 문제를 풀다면, 제일 익숙한 (나)시부터 먼저 읽을 거 같아.

2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③ 정형적인 운율을 살려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 ④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장한 어조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런 유형이 아까 내가 말한 전형적인 유형이야. 시 하나를 읽은 다음에 그 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소개해주지만 해도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거야.

29. (가)와 (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다)	시어의 의미와 기능
①	바닷가	조대	화자가 현재 머무는 장소
②	산새	은린옥척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
③	개벽	성세	화자의 처지가 변화하는 계기
④	물낫바닥	그림자	화자가 수행하는 자기 성찰의 매개물
⑤	아이	벗님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시를 읽고, 일단 그 시 자체에서만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하나하나 소개해, 그럼 나머지 시를 읽을 때 이미 소개된 선지는 아예 볼 필요도 없으니까 시간 절약이 되겠지?

30. (나)와 (다)의 시상 전개 방식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② (나)와 (다) 모두 계절의 변화를 축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③ (나)는 (다)와 달리 여러 대상으로 관심을 옮겨 가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④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 ⑤ (나)는 시적 화자의 심리 묘사를, (다)는 외부 대상 묘사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28,29번과 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가되 여기는 지엽적인 보기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추가해야지. 어디보자, 설의적 표현, 계절의 변화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 심리묘사, 대상 묘사 아이구 3번 보기 빼고는 전부 지엽적인 보기라고 부를 수 있는 거겠네? 다시 시를 읽지 않으려면 한 번 읽을 때 지엽적 보기는 모조리 클리어해야 한다...

31. 시인이 <보기>의 옛 기록을 바탕으로 (가)를 썼다고 할 때, 창작 과정을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경주 선도산(仙桃山)에 신모(神母)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사소’라 했다. 일찍이 신선술을 터득하여 멀리 바다 건너 서쪽 나라로부터 해동(海東)으로 들어왔다. 술개가 날아가 내리는 곳에 집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고서 선도산에 정착하여 신선이 되었다. 사소가 처음 삼한 땅에 이르러 자식을 낳으니, 그가 동국(東國)의 첫 왕이 되었다. 무릇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를 말하는 것이리라.

- ① ‘사소’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새롭게 해석했군.
- ② <보기>에 없는 ‘노래’와 ‘구름’ 같은 시어로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는 ‘사소’의 심정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
- ③ ‘꽃’은 시적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보기> 밖에서 가져온 소재야.

④ <보기>와 달리 ‘사소’가 ‘처녀로 잉태’했다고 한 것은 ‘사소’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설정이야.

⑤ <보기>를 근거로 원주를 붙인 데에는 원주를 참조하여 시를 이해하기 바라는 시인의 의도가 담겨 있어.

(가)시 읽기 전에 보기부터 읽으면 좋겠지? 그런 다음에 (가)시를 읽으면 이해하기에 한결 더 수월할 거야.

32.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 ② 작은 존재들의 연대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련을 극복한 대상을 격려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의 고난 체험에 대한 관조적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약자들에게 외부의 도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권고하고 있다.

이런 유형은 언제나 지엽적 보기가 있는 지를 살펴봐야 해.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에는 지엽적인 보기가 없네. (나)시 독해한 후 바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33. <보기>의 ㉠~㉣ 중 (다)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보 기>—

옛사람들에게 ‘유배(流配)’는 무엇이였을까? 유배 가사를 통해 볼 때, 그것은 ㉠ 외롭고도 힘든 격리인 동시에 ㉡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이기도 했다. 귀양살이의 심경은 흔히 ㉢ 자연물을 매개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형태로 정형화되었지만, 때로는 자기 부정이나 ㉣ 적대자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 떠나온 곳에 마음을 두고 복귀를 욕망하는 모습을 찾아보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이러한 다양한 면모가 엮히는 데에 유배 가사의 묘미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다) 시를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를 구지 먼저 읽지 않아도 되겠어.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푸는 문제는 꼭 사전에 읽어야 하지만 이 보기는 그런 유형이 아니므로 문제 풀 때 읽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

(나)시부터 먼저 할게 (나)시부터 풀이를 봐줘.

(나)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설의 나왔다.)

불어 닳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리(대그도 나왔어)  
 잎들 더러 썩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부정적 상황이라고만 하고 넘어가면 돼)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연대심이지?)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이런걸 비가시적 대상의 가시화라고 해. 흐느낌이라  
 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손을 타고 흐른다고 표현했잖아.)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부정적 시어들이지 이것도?)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설의)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도치도 쓰었네.)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밧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이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떼 지어 설 나무들이(화자의 낙관적인 태도를 볼 수 있네.)

-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

(일단 28번부터 보자. 새채어는 찾아볼 수가 없지? 1번 보기는 틀렸어. out. 의인화된 청자인 나무에게 말을 거는 태도를 취하므로 2번은 일단은 safe. 이 시는 정형률이 아니라 내재율이므로 3번도 out, 명암의 대비는 드러나. 어둠과 밝는 날이라고. 하지만 이 둘의 대비가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지는 않아. 4번도 out. 유장한 어조란 느릿느릿한 어조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아니지? 여유가 느껴지는 것은 아니잖아. 이미 답은 2번으로 정해졌네.)

(다음 30번을 보자. 설의적 표현 나오므로 1번 safe. 계절의 변화는 보이지가 않지? 2번은 틀렸어. (나)시의 대상은 오로지 나무 하나뿐이야. 3번도 틀린 설명. 시각적 이미지가 주로 쓰였지? 4번도 safe 시적 화자의 심리 묘사보다는 나무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따라서 5번도 out. 이렇게 하니깐 다음에 (다)시 볼 때는 2개의 선지만 확인해보면 되지?)

(32번 문제 풀 차례. 화자는 마지막 행에서 낙관적 태도를 보이므로 경계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아. 나무로 표상되는 작은 존재들이 언젠가는 꽃을 피우고 떴지어 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지? 2번은 옳은 설명이야 따라서 답은 2번. 시련을 극복한 대상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존재들이 시련을 극복하려 하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므로 3번은 틀렸어. 화자가 관조하고 있는 것 아니지? 나무의 아픔을 함께 안타까워하고있어. 4번도 틀린 서술. 마지막으로 외부의 도움에 관한 것은 언급된 사항이 아니야.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어. 이제 (다)시를 보도록 하자. 생전 처음 보는 시는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것이 문제 푸는 데 훨씬 유리해.)

(다) 사림을 짓혀 쓰고 망혜를 조여 신고,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내 노래 한가하다.(여유가 느껴지지? 이렇게 유장한 거야)  
 원근 산천이 홍일(紅日)을 띄었으니,

만경창과는 모두 다 금빛이라.(배경묘사 그다 중요치 않아. 정서가 중요하지)  
 낚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銀鱗玉尺)\*이 절로 와 무는구나.(안가하고 여유로운 모습)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取魚)가 아니로다 지취(志趣)를 취함이라.  
 낚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白鷗),  
 내 낚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소냐.(물아일체의 경지가 느껴지네)  
 평생의 곱던 입을 천 리에 이별(와자의 상앙)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어,  
 수심이 첩첩하니 마음을 둘 데 없어,(오 정서 나왔다. '그리움' 이라고 나오지?)  
 흥 없는 일간죽(一竿竹)을 실없이 드렸은들,  
 고기도 상관 앓거늘 하물며 너 잡으랴.( '설의' 의 표현 나온다.)  
 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쫓아 헤쳐,  
 흥중의 붉은 마음 보면은 아오리라.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갚으려니,  
 갚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 (알고보니, 여윌 와자의 선택이 아니라 오배  
 은 삶이라서 그런 것이군.)  
 성세(盛世)에 한민(閒民)\* 되어 너 좇아 다니려니,  
 날 보고 날지 마라 네 벗님 되오리라.

- 안조원, 「만언사」 -

(일단 28번 보자 새채어 나오지? 흥중의 붉은 마음이라는 등 바다가 금빛이고 산천이 붉은 색이고  
 1번보기는 (다)시엔 부합해. 기러기에 말하는 듯한 방식도 보이므로 2번도 옳고, 3번도 맞지? 그전 시  
 는 거의다 외형률이야. 명암의 대비는 드러나지 않고 유장한 분위기는 일부 느껴져. 1,2,3,5번이 이 시  
 에는 부합하네. 물론 답은 이미 2번이지만)

(다음 29번 문제를 보자. 조대가 와자가 머무는 장소가 맞아. 1번 통과, 은린옥척도 와자가 지양  
 하는 것이 아니라 구태여 오는 것이므로 2번도 통과. 성세라고 와자의 처지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 3  
 번 out, 그림자가 성찰의 매개체라고 보기 힘들어. 그냥 백구가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게에 불과하잖  
 아. 4번도 out. 와자가 되고 싶은 것이 백구의 벗 즉 자기 자신이야. 따라서 와자가 부러워하는 대  
 상이 아니지 5번도 out!!!)

(30번 보자. 아까 설의적 표현 확인했지? 이게 답이겠네. (나)시에도 설의가 나왔으니까. 계절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관심이 여러 대상으로 옮겨간다고 보기에도 곤란해. (다) 시여시 시가적 이미  
 지 위주로 시상이 전개되므로 4번도 틀렸고, 5번은 맞는 서술이야. 외부 대상 위주로 시상 전개를 하고  
 있잖아)

(이제 33번 문제로 가자. 외롭고 힘든 격리라는 것은 아까 화자가 ‘그리움’ 이라고 정서를 표출한 데서 알 수가 있지? 유패지에서 임금의 사랑도 새롭게 알게 돼. 그러니 성운을 갇으려고 하는 것이지. 2번도 찾을 수 있고, 자연물인 배구를 임금과 연관지어볼 수 있지? 따라서 3번도 참이야. 그러나 적대자에 대한 원망은 이 시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배구의 벗이 되고 싶다는 것에서 복귀에 대한 욕망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지.)

(보기를 통해 이 시가 설화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란걸 알 수 있지?)

(가) 노래가 낮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한계, 좌절 등이 엿보이지.)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밋어 버렸다.(여기서도 한계, 좌절)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현실적인 것들(돼지, 매, 새)을 추구하지 않아)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의인화된 청자에 말하는 어투!)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낮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해염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달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앞의 시어와 연관지으면 꽃은 목표, 이상향)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원주(原註)] 사소: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 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

(새채어 없고, 정형적 운율도 아니며, 명암의 대비도 보이지 않고 유장한 어조도 아니야. 28번은 이로써 확실히 답이 2번으로 결정!)

(29번 보자. 화자가 현재 머무는 곳은 바닷가가 아니지? 바닷가는 단지 말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음을 표현하는 ‘한계’ 에 해당하는 시어일 뿐이야. 아까 세속적 가치의 입맛을 잃었다고 했지? 따라서 산새는 화자의 지향이 아니야.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지. 3,4,5번 모두 (가)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들이야.)

(이제 마의 31번, 시 자체가 사소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1번 설명은 옳아. 그러나, 노래와 구름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지 고향에 가고싶다는 것을 내포하지 않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어. 보기에 없는 꽃이란 소재가 시에서 생김으로써 이상향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소의 모습을 조금 더 부각하고 있어. 처녀로 잉태했으니 당연히 특별한 존재겠지? 그리고 원주를 붙인 이유는 당연히 원주에 입각해 해석하라는 것이잖아. 안 그러면 뭐하려고 구지 주를 달아주겠어. 따라서 답은 2번이야.)

\* 조대: 낚시를 하는 곳.  
\* 은린옥척: 모양이 좋고 큰 물고기.  
\* 한민: 한가로운 백성.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 지문이 나왔어. 거의 백프로 지문에서 설명하는 문법이나 언어적 특징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꼼꼼하게 익어야 해.

34.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적절성 조건을 어긴 문장은 문법적으로도 잘못이다.
- ② 예비 조건은 다른 적절성 조건들보다 우선 적용된다.
- ③ 적절성 조건이 가장 잘 적용되는 발화 행위는 요청이다.
- ④ 하나의 발화도 상황에 따라 적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⑤ 적절성 조건을 어긴 발화는 그렇지 않은 발화보다 의사소통에 효과적이다.

미루어 알 수 있는 문제나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라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첫 번째 문제의 형식이 출제되었어. 보기를 모두 관통하는 핵심어는 적절성 조건, 그리고 예비 조건이지? 이 두 단어가 나올 때는 신경써서 독해해줘야 해.

35. 위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친숙한 예를 들어 독자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
- ② (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여 논의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
- ③ (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주요 개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라): 다른 사례를 들어 앞 단락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마):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글의 서술 방식을 문단별로 나눴어서 묻는 문제야. 별로 어려울 것 없어. 단지 한 문단이 끝날 때마다 35번으로 와서 소개해주도록 하자.

36. <보기 1>은 ㉠의 예비 조건이다. ㉠에 대해 <보기 2>와 같이 차례로 반응을 보였다고 할 때, 예비 조건에 대한 태도가 다른 사람은?

<보기 1>

- 집보다 큰 곰 인형을 사 오는 것을 딸이 좋아할 것이라고 아빠가 믿는다.
- 집보다 큰 곰 인형을 사 올 수 있다고 아빠 스스로 믿는다.

딸(6세) : (샐쭙거리며) 세상에 그렇게 큰 곰 인형이 어딤어?

아들(4세) : (불멘소리로) 아빠, 나도 사 줘.

엄마 : (딸의 손을 잡으며) 그럼 아빠한테 예쁜 구두 사 달라고 할까?

할머니 : (온화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보며) 그래, 구두가 좋겠다.

할아버지 :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슨 선물을 사 주면 우리 아기가 좋아할까?

- ① 딸                                      ② 아들                                      ③ 엄마
- ④ 할머니                                      ⑤ 할아버지

이 문제는 약간 특이한 유형이야. 우리는 기존에 ㉠과 같이 밑줄 그어진 내용이 있으면 그 전후 부분을 읽은 후에 바로 문제를 풀었잖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기가 매우 힘들어. 왜냐하면 밑줄이 첫 문단에 쳐져있기 때문이지. 따라서 나중에 나오는 예비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 후에 이 문제로 넘어와서 풀어야 해.

37.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수돗물 잠그고 나오는 것을 잊어서 불안해요.
- ② 그는 일에 푹 빠져 자기 나이를 잊고 지낸다.
- ③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사람의 이름도 잊었어요.
- ④ 그는 괴로운 현실을 잊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 ⑤ 지난날의 감정은 모두 잊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어휘, 어법 문제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가) 딸의 생일 선물을 깜빡 ㉠ 잊은 아빠가 ㉠ “내일 우리 집보다 더 큰 곰 인형 사 올게.”라고 말했다 때, 아빠가 발화한 문장은 상황에 적절한 발화인가 아닌가?(35번의 1번 보기 옳지? 인형을 사는 아빠의 예를 들었잖아. 물론 친숙하지?)

(나) 발화의 적절성 판단은 상황에 의존하고 있다.(적절성 판단이 나오네) 화행 이론은 요청, 명령, 질문, 약속, 충고 등의 발화가 상황에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절성 조건을 제공한다. 적절성 조건은 1. 상황에 대한 배경적 정보와 관련되는 예비 조건, 2. 그 행위에 대한 진실된 심리적 태도와 관련되는 진지성 조건, 3. 그 행위가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되도록 만드는 발화 효과와 관련되는 기본 조건으로 나뉜다. 어떤 발화가 적절한 것으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전부 충족되어야 한다.(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적절한 발화래. 35번에 2번 보기도 옳지? 적절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잖아. 아직 34번은 소개할 수 있는 보기는 없네)

(다) 적절성 조건을 요청의 경우에 적용해 보자. 청자가 그 행위를 할 능력이 있음을 화자가 믿는 것이 예비 조건, 청자가 그 행위를 하기를 화자가 원하는 것이 진지성 조건,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산타 (조금 더 친숙한 단어로 바꿔서 다시 한 번 세 조건을 설명해주었어. 그리고 뒤이어 친숙한 예가 나오지)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세요.”라는 발화는,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발화이지만 수행할 능력이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예비 조건을 어긴 요청이 된다. “저 좀 미워해 주세요.”라는 요청은, 화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상황이라면 적절하지만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진지성 조건을 어긴 요청이 된다. “저 달 좀 따다 주세요.”라는 요청은,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정말로 달을 따러 가게 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본 조건을 어긴 요청이 된다. (구체적 사례가 3개나 나오지? 따라서 35번에 3번 설명도 옳아. 그리고 이 문단에서 34번의 4번 설명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산타클로스에서 아들과 부모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적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잖아.)

(라) 둘 이상의 조건을 어긴 발화도 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저 달 좀 따다 주세요.”의 경우, 화자는 청자가 달을 따다 줄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고 달을 따다 주기를 진심으로 원하지도 않으며 또 달을 따러 가게 할 생각도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므로, 세 조건을 전부 어기고 있다. 그런데도 이 발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번히 사용되고 또 용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자는 이 발화가 세 조건을 전부 어기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모종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고 청자 또한 그런 점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발화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유효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용인된다. (적절성 조건을 어기더라도, 유효한 의사소통으로 용인된다. 그렇다고 34번에 5번처럼 말하는 것은 비약이 심한 거겠지? 또한 이 문단은 앞 문단의 사례를 든 것인지 다른 사례를 든 것이 아니야. 또한 앞 단락의 내용을 뒷받침하려는 것도 아니야. 단지 둘 이상의 조건을 어긴 발화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 뿐이야.)

(마) 화행 이론은 적절성 조건을 이용하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발화의 적절성에 대해 유용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나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너무나 복잡다단하여 이것만으로 발화와 상황의 상호 관계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한계는 발화 상황과 연관 지어 언어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언어 이론의 공통적 한계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화행 이론만 가지고 발화의 적절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이론의 한계를 논의하고 있어. 따라서 35번의 5번은 옳은 보기가이지.)

이제 36번을 풀도록 하자. 아버지의 약속에는 자신이 집보다 큰 금을 사올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그러나 아들을 제외한 네 사람은 이 약속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다른 선물을 권유하거나,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아.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발화를 믿고 있어. 때문에 자신에게도 금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지. 따라서 답은 2번이야.

37번으로 가자. 본문에서 쓰인 ‘있다’의 뜻은 기억해야 할 것을 한순간 생각내지 못하다 라는 뜻이야. 답은 1번이지? 2번, 3번, 4번은 의식적으로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뜻이야. 본문의 ‘있다’와는 다르지. 5번 역시 잠시동안 생각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답이 아니겠지?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극문학이 출제되었어. 극문학 문제에는 빈번하게 소설이나 대화가 아닌 일반적 서술로 바뀐 때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돼. 다른 갈래에 비해서 문제가 쉬운 편이니까 일단은 조금 안심을 해 보면서, 그러나 방심하지는 말고 문제를 읽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갈래가 극문학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리 말하면 여기서 시간을 빼기면 전체적으로 언어 문제를 시간 내에 다 못 풀 수도 있다는 것이야.

3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극중 시간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은 황야에 위치한 마을이다.
- ③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준다.
- ④ 등장인물들은 서로에게 협력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중심 갈등은 ‘파수꾼 나’와 ‘파수꾼 다’ 사이에 나타난다.

(위 글에 대한 설명이라는 광범위한 발문이 나왔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지엽적인 보기가겠지? 여기서는 딱히 보이지는 않네. 그저 하나 적자면 시간의 흐름 전환? 이 정도를 참고해두자.)

39. <보기>를 참조하여 [A]를 서사극으로 공연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정통 연극은 무대의 모든 사건과 인물이 현실 그대로라는 것을 강조한다. 무대 위의 햄릿은 진짜 햄릿이지 특정한 배우가 아니며 무대 위의 상황도 현실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서사극은 현실과 극중 상황을 분리하여 관객을 관찰자로 만든다. 관객에게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연극’일 뿐이다. 그리고 그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서사극에서는 ‘낮설게 하기’의 기법을 활용하여, 일부러 무대 장치를 노출하기도 하고 배우가 관객에게 극중 상황을 설명하기도 한다.

- ① 무대의 배경 그림이나 망루를 실감 나게 제작한다.
- ② 배우들의 표정에서 내면이 잘 드러나도록 조명을 활용한다.
- ③ ‘춘장’이 해설자의 역할도 맡고 있다는 점을 관객이 알게 한다.
- ④ 파수꾼들에게 각각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여 개성을 드러낸다.
- ⑤ ‘파수꾼 다’는 역할에 어울리는 연기로 관객의 연민을 이끌어낸다.

이번에는 소설이 아니라 서사극으로의 변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어. 보기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야 하므로 (A)를 읽기 전에 보기부터 읽어주어야 출제도도를 제대로 파악해 낼 수가 있어.

40. 위 글의 ‘팻말’과 ‘딸기’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딸기’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한 파수꾼에게 촌장이 제공하는 보상을 뜻한다.
- ② ‘팻말’은 촌장이 지난날을 돌아보며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팻말’은 명분 뒤에 숨겨진 ‘딸기’라는 실리를 촌장이 차지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 ④ ‘팻말’은 이리 떼라는 위협으로부터 ‘딸기’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⑤ ‘딸기’는 ‘팻말’이라는 금기와 이리 떼라는 위협 아래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나타낸다.

**밑줄만 그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밑줄 그인 문제와 똑같은 유형이야. 팻말과 딸기가 나오는 부분의 전후를 읽은 후에 이 문제를 풀도록 하자.**

**파수꾼 가**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북을 두드린다. ‘파수꾼 다’는 여느 때와는 달리 침착하게 일어선다. 그리고 담요를 벗어 네모반듯하게 갠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그는 북을 두드리는 ‘파수꾼 나’를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왜 안타까워하는 걸까?)**

**[A]** **파수꾼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물러갔다.

**파수꾼 다** 정말 이리가 있다구 믿으세요?

**파수꾼 나** 보렴, 방금도 이리 떼가 오질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파수꾼 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쩜 그 많은 나날을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파수꾼 나**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파수꾼 다** 오히려 이리가 있다구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 없구요, 양철북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아, 파수꾼 다는 이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리의 존재를 믿는 두 파수꾼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거구나.)**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39번의 보기를 이제 읽어보자. 연극이 연실이 아니라면 것을 일깨워주는 것을 낫설게 하거나 하지? 따라서 1번이나 2번처럼 실감 나게, 표정 연기를 잘 한다면 관객은 연실과의 혼동을 느끼게 되므로 둘 다 부합하지 않는 보기야. 반면 3번처럼 한 사람이 2가지 배역을 맡는 일은 연실에서는 불가능하므로 ‘낫설게 하기’ 기법이 쓰인 거 맞지?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

야. 고유의 이름을 주는 것보다 파수꾼 1,2,3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연극임을 알 수 있게 하므로 4번도 틀렸고, 연기를 너무 잘 해도 '나눠줄게 하기' 기법에 어긋나겠지? 5번도 옳지 않은 보기야.)

(중략)

촌장 오다 보니까 저쪽 뒷에 이리가 치어 있습니다.(어, 근데 왜 이리가 있다고 하지?)

파수꾼 나 이리요? 어느 쪽이죠?

촌장 저쪽요, 저쪽. 짚레 덩굴 밑이던가요…….

파수꾼 나 드디어 잡는군요!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파수꾼 다’에게 보인다.

촌장 이것, 네가 보낸 거니?

파수꾼 다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 달라구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파수꾼 다 도끼는 왜 들고 와요?

촌장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 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파수꾼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촌장도 이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렇다면 40번 문제로 가도록 하자. 딸기를 파수꾼에게 보상으로 준다는 것은 언급되지 않았어. 팻말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지 촌장의 가치관이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딸기의 존재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는데 딸기가 공동체적 가치라는 말도 틀린 설명이지? 딸기는 마을 사람들의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촌장이 자신만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것을 의미해. 따라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 3번이 돼. 팻말을 통해 사람들을 경계시켜서 그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 실리는 촌장 혼자 다 챙기는 것이지.)

파수꾼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파수꾼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뒷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파수꾼 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

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춘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아주 그럴 듯한 말로 설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춘장의 진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알 수 있을거야. 물론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38번 보자, 시간의 역순행은 보이지 않았는지? 공간적 배경은 마을이 아니라 현재 망루야. 무대 밖의 마을 사람들이 화난 상태에서 도끼를 들고 온다는 사건이 파수꾼 ‘다’의 마음을 흔드는 역할을 하며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주고 있어. 따라서 답은 3번, 등장인물들은 서로에게 협력한다고 보기는 아직 힘들어. 파수꾼 다가 춘장에게 협조하겠다는 뒤의 내용이 그래서 본문에서 빠진 것 같아. 중심 갈등은 파수꾼 다와 춘장 사이의 갈등이야. 따라서 5번 보기도 틀렸어.)

- 이강백, 「파수꾼」 -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문학 과학 지문이 출제되었네? 43번과 같은 그림 문제는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야 풀 수 있기 때문에, 한 문단을 다 읽고 난 후에는 43번의 보기들과 비교해보는 것이 내용을 안 잊어버리고, 또한 문제를 풀면서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야. 그럼 일단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자.

41. 위 글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표제와 부제는? [1점]

- ① 남극 빙하의 가치
  - 기후 변화의 기록 보관소
- ② 남극 빙하 이야기
  -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실태
- ③ 빙하 연구의 현주소
  - 과학적 연구 성과와 전망
- ④ 남극, 거대한 실험실
  - 동위원소 연구의 현황
- ⑤ 남극 빙하의 과거와 미래
  - 새로운 자원의 보고

글의 제목은 전체 문단들이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지를 알아보아야 풀 수 있어. 즉 문단별로 중심내용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단별 중심 내용을 찾는 연습을 항상 할 것.

42. 위 글을 바탕으로 과제를 수행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과제명: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 변화 양상
- 조사 대상: 남극에서 시추한 빙하
- 조사 방법 및 내용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기체 성분 조사
  - 산소 동위원소비를 이용한 기온 측정
  - 산소 동위원소비 증감의 주기성을 이용한 ( ㉠ ) 조사

- ① 생성 연대            ② 오염 정도            ③ 평균 강도  
 ④ 결정 구조            ⑤ 전체 부피

이건 못 보던 형식의 문제이지? 그러나 당황하지 말 것. 이 문제의 발문을 다르게 바꾸면, '다음 보기 중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 변화 양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로 바꿀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 변화 양상이 나오는 부분 전후를 읽은 후에 바로 문제를 풀러 오면 된다는 말씀.

43. 위 글과 <보기>를 이용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그림은 시추한 빙하의 일부분과 그것을 확대한 것이다.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ㄱ. 시추한 빙하에는 화산재가 포함되어 있다.
- ㄴ. 시추한 지점의 표층 부분 눈의 밀도는  $0.3 \text{ g/cm}^3$ 이다.
- ㄷ. 산소 동위원소비는 검은 띠 부분에서 증가하고 흰 부분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 ① A에 해당하는 시기에 화산 활동이 있었을 것이다.

- ② B 지점이 C 지점보다 당시 기온이 낮았을 것이다.
- ③ 시추한 빙하 하부의 밀도는  $0.3 \text{ g/cm}^3$ 보다 클 것이다.
- ④ 시추한 빙하의 하부로 갈수록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할 것이다.
- ⑤ 깊이 50 m인 지점보다 100 m인 지점의 얼음이 먼저 만들어졌을 것이다.

상당히 난해한 문제야. 그림 문제이긴 하지만 지문 전 영역의 이해를 요하는 까다로운 문제지. 뭐 우 리는 한 문단을 읽어보고 하나하나 보기를 지어나간다면 쉽게 풀 수 있을거야.

남극의 빙하는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과 기온 변화에 관한 기초 자료를 생생하게 보존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빙하를 분석함으로써(앞으로 이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뜻이지?)** 지구 온난화 등 지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얻고 있다.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빙하를 분석함으로써 지구의 여러 문제를 알 수 있다.’ why???)**

남극의 표층에 쌓인 눈은 계속 내리는 눈에 덮이면서 점점 깊이 매몰되고 그에 따라 눈의 밀도는 점차 증가한다. 일정한 깊이에 이르면 상부에 쌓인 눈이 가하는 압력 때문에 하부의 눈은 얼음으로 변형된다. 이때 눈 입자들 사이에 들어 있는 공기가 얼음 속에 갇히게 되고, 얼음이 두꺼워지면서 상부의 얼음이 가하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클라트레이트 수화물\*이 형성된다. 이 속의 기포들은 당시 대기의 기체 성분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 **(빙하 분석을 통해 당시의 대기 상태를 알 수 있구나.)** 기포가 포 함된 얼음을 시추하여 녹이면 원래의 상태로 바뀌고, 이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정밀 기기를 사용하여 그 속의 기체 성분을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 소나 메탄 등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과 농도를 알아낼 수 있다. **(이산화탄소, 메탄 등이 많으면 온난화가 진행되었다... 이런 식의 유추를 할 수 있지? 이 문단의 중심내용은 ‘빙하의 분석 - 빙하 속 기포 내의 대기 상태 분석’ )**

그러나 빙하 속 기포 내의 대기 성분 정보를 통해 그 당시의 기온을 알아내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과거의 기온을 조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빙하를 구성하는 물 분자의 산소나 수소의 동위원소비를 이용하는 것이다. **동위원소란 원자 번호는 같지만 원자량 이 서로 다른 원소를 말하는데, (정의는 가능하면 밑줄을 그어두는 센스)** 산소의 동위원소로는 원자량이 16인 산소( $^{16}\text{O}$ )와 원자량이 18인 산소( $^{18}\text{O}$ )가 있다. 남극 빙하를 구성하는 물 분자들의 산소 동위원소비( $^{18}\text{O}/^{16}\text{O}$ )는 눈으로 내릴 당시의 기온 변화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며 여름과 겨울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증감은 일 년의 주기를 갖는다. 오늘날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산소 동위원소비의 증감은 기온 변화와 거의 정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적용하여 빙하가 만들어진 당시의 기온을 알 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포 내 대기 성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이 문단을 통해서 보 여줘.)**

빙하에 대한 최근 연구는 산소의 동위원소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농 도 변화도 기온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체들의 농도가 증가하 면 기온이 올라가고 반대로 농도가 감소하면 기온이 내려간다는(이미 2문단에서 우리가**

요추했지만 한번 더 밑줄을 그어주자.)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빙하로부터 알게 된 과거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농도 변화 폭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이들의 농도는 우려할 만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온난화의 진행 수준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산화탄소 농도가 나왔으니 일단 42번 문제로 가자. 산소 동위원소비에 대해서는 이전 문단에서 나왔지? 산소 원소비의 증감 주기가 1년이라고 했잖아. 이를 이용한다면 보기 1번 ‘생성 연대’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겠지? 오염 정도니 평균 강도니 하는 것들은 전혀 지면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잖아.)

(41번 문제를 보자. 이 글은 빙하를 통해 지구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글이야. 보기 1번은 적당한 말이지? 빙하가 기후 변화 기록을 보관함으로써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 설명은 옳아. 2번 보기는 표제는 그럴듯하지만 부제가 틀렸어.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실태가 주 설명내용이 아니야. 3번은 표제부터 틀렸어. 현재의 빙하 연구가 어떤지를 설명하는 글이 아니잖아? 4번, 5번 역시 3번과 같은 이유로 표제부터 이미 틀렸어. 따라서 답은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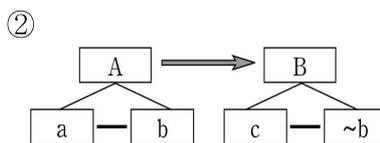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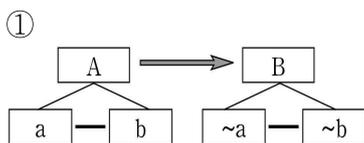
(이제 43번을 보도록 하자. A부분은 화산재, 표층의 밀도가 0.3g/cm, 동위원소비는 검은 부분에서 증가, 흰 부분에서 감소한다. 1번 보기에는 A에 화산 활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자? 화산재가 있으면 오빠른 서늘이지? 3문단에서 산소 동위원소비는 기온에 정비례한다고 했잖아? 따라서 검은 부분이 기온이 더 높았겠지? 2번 보기도 옳아. 빙하의 하부로 갈수록 밀도는 증가한다고 했으므로 3번 보기도 옳아. 온도가 높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고 했지? 그리고 산소 동위원소비가 증가할수록 온도는 높아지고,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소 동위원소비와 비슷하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다시 높아졌다 하겠지? 따라서 4번 보기는 틀린 서술이야. 아래로 내려갈수록 당연히 먼저 만들어졌을테니까 5번도 옳아.)

\* 클라트레이트 수화물: 고압과 저온의 조건에서 물 분자가 결합하여 생성된 빈 공간에 메탄, 이산화탄소, 질소 등 분자량이 작은 기체가 들어 있는 결정체.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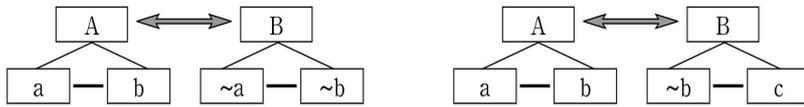
비문학 ‘사회’ 영역이 출제되었어. 문제를 보니까 그림 문제가 3문제 중 2개나 나오지? 어, 과학, 기술, 경제 지문도 아닌데 그림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 문제의 형식은 다양해질 수 있지만 본질은 거의 비슷할 거니까, 차근차근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자.

44. [A]와 [B]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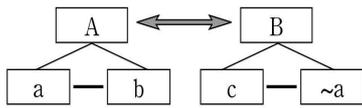


③

④



⑤



↔	대립 관계	A, B 주장
→	인과 관계	a, b, c 근거
—	나열 관계	
~	부정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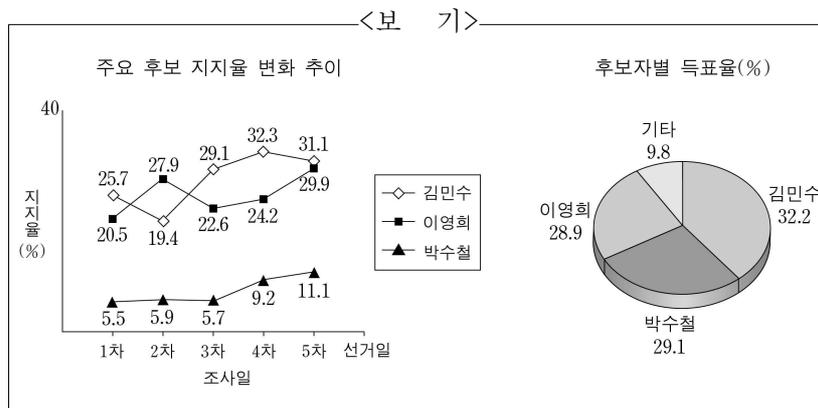
약간 색다른 문제야. 우리가 기존에 알던 비문학 첫 번째 문제 스타일과는 많이 다르지? (A)와 (B)의 관계를 도식화하러면서 대립인지 인과인지 나열인지 부정인지를 보고, 주장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상당히 특이한 스타일의 문제야.

45. 위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론 기관이 알 권리를 대행하기도 한다.
- ② 알 권리는 법률에 의해 제한되기도 한다.
- ③ 알 권리가 제한되면 표현의 자유가 약화된다.
- ④ 알 권리에는 정보 수집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 ⑤ 공표 금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알 권리는 강화된다.

보기 5개를 관통하는 말은 '알 권리' 이지?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전체 지문의 내용의 이해를 요하기 보다는 '알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에만 하면 돼. 따라서 그 말이 나올 때 유의깊게 독해하고 바로바로 소개하러 45번 문제로 오도록 하자.

46. ㉠을 바탕으로 <보기>를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 ① 이영희 후보의 지지율과 득표율을 보니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 ② 박수철 후보의 5차 조사 결과와 득표율을 보니 열세자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 ③ 2차와 3차 조사 사이에 김민수 후보에게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 ④ 3차와 4차 조사 사이에 박수철 후보에게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⑤ 김민수 후보와 이영희 후보의 득표율을 보니 열세자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ㄱ은 밴드왜건 효과와 열세자 효과야. 이 용어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 세 문제 모두 부분적 내용의 이해를 요하는 상당히 특이한 스타일의 문제구성이야.

선거 기간 동안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  
 다. 조사 결과의 공표가 유권자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는 주장과, 공표 금지가 선거 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을 제한하여 알 권리를 침해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 조사가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 왜 그런지  
 에 대해서 나오겠지? )

찬성론자들은 먼저 ㉠ ‘밴드왜건 효과’와 ‘열세자 효과’ 등의 이론을 내세워 여  
 론 조사 공표의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킨다. 밴드왜건 효과에 의하면, 선거일  
 전에 여론 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사표(死票) 방지 심리로 인해 표심이 지지도가  
 높은 후보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열세자 효과에 따르면, 열세에 있  
 는 후보자에 대한 동정심이 발동하여 표심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밴드왜건  
 효과와 열세자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왔어. 바로 46번 문제로 가자. 이영희 후보는 지지율  
 에 비해서 득표율이 적게 나왔지? 이는 밴드왜건 효과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  
 은 김민수 후보에 쏠린 것이지 표가. 따라서서 틀린 보기, 박수철 후보는 5차에서 지지율 1위가  
 아니었음에도 5차보다 실제 선거에서 훨씬 많은 지지를 받았지? 이는 열세자 효과라고 할 수 있  
 지. 2번이 정답!, 2차에서보다 3차에서 김민수 후보는 2차에서 1위가 아니었음에도 지지율이 증  
 가하였으므로 이는 열세자 효과에 해당돼. 밴드왜건 효과가 아니고. 박수철 후보는 3차 투표에서  
 지지율 1위가 아닌데, 3차보다 4차에서 지지율이 증가하였으므로, 역시 열세자 효과지? 김민수  
 후보와 이영희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밴드왜건 효과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어. 사표 방지 심리로 5  
 차 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김 후보에게 표가 쏠린 것이야.) 각각의 이론을 통  
 해 알 수 있듯이,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가 어느 쪽으로든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공표가 갖는 부정적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  
 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공정한 여론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리고 금권, 관권  
 부정 선거와 선거 운동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많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도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그 이유로 든다. (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자는 주장이  
 지? 그 이유로 투표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a) 공정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어. 아직까지는 44번에서 달리 소개할 만한 보기는 나오지 않았어. 다음 (B)도  
 읽어보자.)

[B]

이와 달리 반대론자들은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알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알 권리는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는 데 전제가 되는 권리인 동시에 국민 주권 실천 과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사상 및 의견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권리이다.(알 권리의 정의가 나왔으므로 밑줄. 45번 문제 풀 준비!!!) 그리고 이 권리는 언론 기관이 '공적 위탁 이론'에 근거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충족된다. 후보자의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 등에 관한 여론의 동향 등은 이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언론이 위임받은 알 권리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논리이다. 또 이들은 조사 결과의 공표가 선거의 공정성을 방해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공표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음도 강조한다.(일단 여기서 45번으로 가면 1번 보기는 옳지? 2번 보기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법률에 의한 권리는 몰라도 아무튼 제한은 가능함을 알 수 있어.)언론이 알 권리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했잖아. 또한 3번 보기도 옳아.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이를 제한하면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약화될 거지. 4번 보기도 알 권리는 정보와 사상을 자유롭게 구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옳은 서술이야. 틀린 서술은 5번이야. 3문단에 아까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잖아. 따라서 공표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 알 권리는 더욱 약화될 거야.)

(이제 44번 문제를 보도록 하자. (B)에서는 여론 조사 공표를 찬성하지? 그 이유로 표현의 자유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것과, 여론조사 공표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일단 (A)와 (B)의 관계는 대립 관계지? 1번 2번 소개, 그리고 (B)의 근거는 C와 ~대로 표현할 수 있지.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별로 어렵진 않지?)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 기간 내내 공표를 제한했던 과거와 비교해 보면 금지 기간이 대폭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공표 금지에 대한 찬반 논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 선거법을 통해서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구나. 45번의 2번 보기도 옳다는 것이 이걸로 확실해졌어.)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마지막 지문으로 소설이 출제되었어. 소설은 주로 인물에 대한 문제, 시점에 대한 문제, 인물 간 갈등을 묻는 문제, 배경을 묻는 문제 등 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주를 이루어. 그리고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야. 마지막으로 지엽적 보기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면서 문제를 보도록 하자.

47. 위 글의 서술상의 시간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지금(1) → 그날 밤 → 며칠 전 → 지금(2) → 다음날

- ① ‘지금’(1)과 ‘지금’(2)는 공간적 배경이 다르다.
- ② ‘그날 밤’과 ‘지금’(2)는 시간적 배경이 동일하다.
- ③ ‘그날 밤’과 ‘며칠 전’ 장면은 서술자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
- ④ 실제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며칠 전’이 가장 먼저이다.
- ⑤ ‘다음날’에는 새로운 사건의 발생이 암시되어 있다.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묻는 문제야. 따라서 서술상의 시간에 따라서 배경 정리가 필요하겠지? 그리고 3번 보기는 지엽적 보기니까 ‘그날 밤’과 ‘며칠 전’은 특별히 시점까지 정리해준다.

47. ㉠~㉣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이것’은 주체와 타자,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사회적 통로이다. ‘이것’을 매개로 주체는 타자와 세계에 대한 앎을 확장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동시성과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것’은 현대소설에서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갖는 장치로 활용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지문을 읽기 전에 보기부터 보도록 하자. 간단하게 보기의 내용은, 주체와 세계가 연결되는 사회적 통로이자, 자신의 처한 상황을 재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지? 이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든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

49. <보기>의 ㉠~㉣ 중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있는대로 고른 것은?

<보 기>

소설 읽기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일종의 여행이다. 우리를 안내하는 작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여행을 돕는다. 그는 ㉠ 상황을 요약하여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의 수고를 덜어 주기도 하고, ㉡ 개념적인 언어로 자신의 사상을 직접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을 떠난 여행이 그렇듯이 소설을 읽는 여정 역시 순조롭지만은 않다. 작가는 ㉢ 외부 사물의 묘사로 복잡한 심리 상태를 암시하기도 하고, ㉣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d부터 d까지의 핵심 의미를 미리 머리 속에 기억해둔다음 지문을 읽는다면 금방 찾을 수 있을거야. a는 상황의 요약, b는 개념적 언어로 사상 피력, c는 외부 사물의 묘사 - 복잡한 심리 내포, d는 예상치 못했던 극적인 반전.**

50. [B]와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에서는 ‘그’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② [B]에서는 ‘비밀결사’가 ‘그’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③ [C]에서는 ‘그’의 ‘할 일’에 대한 어머니의 불신을 읽을 수 있어.  
④ [C]에서는 ‘그’를 만류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을 수 있어.  
⑤ [B]와 [C]의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

**부분을 묻는 문제, (B), (C) 전후를 읽고 바로 문제로 와서 소거법을 사용해도록 하자.**

어둠이 짙어질수록 밤하늘에는 별들이 빙판(氷板)에 얼어붙은 구슬들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배경에서 좋지 않은 상황임을 엿볼 수 있어. '찬 바람', '얼어붙은 구슬' 등이 그 예이지.)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갈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 발밑으로 떨어져 흩날렸다. 그는 [지금] 가로수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가 않았다. 그는 즈봉 포켓 속에 구겨 넣은 신문을 다시금 손으로 구겨 쥐었다. 어머니 —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 순간 '아래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실신한 노모'라는 ㉠ 신문 구절과 함께 노파의 주름진 얼굴이 어머니 얼굴과 겹쳐서 떠올랐다. 그러나 곧 '모두가 조국을 위해서다.' 하는 음성이 그의 마음을 뒤덮고 지나갔다. (조국을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안타까운 처지를 알 수 있어. 먼저 47번에서 지금(1)에 해당하든 보기가 1번이나 현재의 공간적 배경은 '가로수가 있는 바깥' 이야. 또한 48번을 보자. 화자는 신문을 통해서 한 청년의 어머니가 실신했다는 '세계에 대한 앎' 을 경험했지? 또한 자신의 처지도 안타까워하므로 그의 상황을 재인식하게 돼. 48번의 답은 따라서 ㄱ이 되겠네. 첫 보기가 답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면 일단 소개하지 말고 표시만 해놓고 다음 보기들의 정오를 확인해보아도 괜찮아.)

[A]

'이미 우리는 ㉡ 조국을 위해서만이 있는 몸이다. 지금의 네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다 더 보람 있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지.' (㉡은 일단 '세계에 대한 앎' 부터가 없지? 따라서 틀린 보기야.)

약 이 개월 전 일이었다. 그가 투신하고 있는 비밀결사에서는 한 사람을 암살하지 않으면 안 될 경지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바로 계획된 [그날 밤] 오랜 신병 끝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의 어머니가 숨겨 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일단 과거의 일을 요약적으로 설명해서 제시해주었지? 아까 요약적 제시란 말이 49번에서 나왔잖아. 따라서 a는 확인할 수 있는 보기 맞지? 그러나 화자의 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은 (A)에 없어. 따라서 b는 틀린 보기야. 아까 첫 문단 첫 문장에서 어둠이 깔린 밤하늘, 빙판에 얼어붙은 구슬 등 외부 사물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지? 따라서 c는 옳은 보기, 그리고 반전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딱히 존재하지 않지? d도 틀린 보기야. 답은 a,c인 2번!!!)

( 이번엔 47번을 보도록 하자. '그날 밤' 의 시간적 배경은 이 개월 전이지? 또한 이부분의 서술자의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야.)

클락슨 소리가 짧게 밖에서 또 한 번 울려 오고 있었다. 정각에서 삼십 분 전. 야광 초침이 파란 빛깔을 그으면서 아라비아 숫자가 나열된 동그란 원반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 클락슨 소리가 다시 짧게 울렸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들고 어둠과 마주 섰다. (클락슨 소리를 통해서 화자의 상황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 하지만 이 역시 세계와의 소통은 찾아볼 수가 없지? 따라서 48번에 3번 보기도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야.)

[B]

“연기는 안 돼. 생각해 봐. 우리가 오늘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정력을 소비했나를…….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실패하는 경우엔 이미 우리들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야. 지금 우리들은 삼이라는 성공 숫자 앞에 와 있다. 알겠지? 어머니는 우리가 말을 테다. 조국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한 우리들이 아니냐.” (50번 문제로 가자. 1번 보기는 맞지? 암살이라는 조국을 위한 중요한 임무를 ‘그’가 수행하고 있잖아. 2번 보기도 옳아. 비밀 결사의 사람들이 어머니보다는 조국을 선택할 것을 압박하고 있잖아.)

나직하면서도 몹시 초조한 음성이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어머니의 신음 소리가 무겁게 방 안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다.

(중략)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어머니는 방문이 부시시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천장이 축 처져서 내려앉은 ㉔ 방 안은 더욱 답답하고 어두웠다. (축 처진 방,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되지,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안쓰럽고 죄송하고... 하지만 세계와의 소통은 보이지 않아. 48번의 4번 보기 역시 옳지 않아.) 그는 어머니 앞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꿰어앉았다. 고개를 약간 모로 눕히면서 아들 모습을 더듬어 가고 있는 그 눈빛은 다 꺼져 가는 모닥불처럼 희미하게 등잔불 빛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노파는 아들의 음성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간신히 흔들어 보이는 것 같았다.

“어머니, 의사가 왔었어요?”

그러나 노파는 가만히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가 하여 다시 한 번 어머니 귀 가까이 입을 대고 물어보았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 표정을 조용히 지켜다. 험하게 주름져 간 입술이 움직거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 손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하므로 그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물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만을 꼭 움켜쥐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곧 아들의 손을 끌어당겨 자기 뺨 위로 가져갔다. 그리고 이미 시선과 손의 감각만으로써는 아들을 느껴 볼 수가 없는 듯이 아들의 손을 자기 입술에 가져다 대어 보는 것이었다. 그는 가슴이 몽클 뜨거운 물결 속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순간 **며칠 전** 집을 나갈 때 간신히 입을 열고 중얼거리던 어머니 말씀이 눈앞에 또렷이 아로새긴 것처럼 떠오르는 것이었다. (여기서 ‘며칠 전’이라 함은 현재에서 ‘며칠 전’이 아니라 아까 나왔던 2개월 전의 ‘그날 밤’에서 며칠 전을 의미해. 이 부분에서도 서술자의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47번의 답은 3번으로 결정!!)**

“언제 돌아오나?”

“오늘은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저 옆집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좀 돌봐 달라고 돈도 드렸으니까 근심 마세요. 의사도 이따 저녁에 다시 한번 들러 주세요.”

“오냐.”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허공에 눈 주고 있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C] “어머니는 아들만을 위해서 있단다. 나이 들면 들어 갈수록……. 그러나 아들이야 그럴 수 있겠니, 제 할 일이 더 중한데…….”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애뜻한 사랑,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을 엿볼 수가 있어. 50번 문제로 가자. 어머니가 그렇다고 아들이 하는 일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 따라서 3번 보기는 틀린 서술이야. 어머니가 아들을 만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4번은 맞는 보기, 그리고 어머니의 말과 비밀결사대원들의 말이 화자를 감동하게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지? 50번의 답은 3번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쇠한 어머니의 애뜻한 기대를 깨닫지 못하는 바 아니었으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이었다.**(결국 결사대원의 말을 듣고야 말았어.)**

그는 **[지금]**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채 자기 손을 끌어당겨다 입술 위에 대고 어루만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 후 자기 손을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손은 맥없이 그대로 멈추어졌다. **(이 부분은 아까 2개월 전의 ‘그날 밤’ 과 시간적 배경이 동일하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방 안’ 이 되겠지? 따라서 47번의 1번 그리고 2번 보기 모두 옳은 설명이야.)** 그는 뼈만이 앙상한, 여윈 어머니의 손가락으로부터 어머니 눈위로 시선을 옮겼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희미한 어머니의 눈빛, 마치 그것은 먼지 속에 퇴색하여 버린 **⊕ 유리알**처럼 빛을 잃고 있었다. **(‘유리알’ 에서도 세계와의 소통을 찾아볼 수가 없어. 48번의 답은 이로써 1번으로 확실해졌어.)** 그 순간 어머니는 지금 아들의 모습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어두운 선을 그으며 지나갔다.

**[다음날]** 그는 밀회 시간을 어기고 그대로 어머니 곁에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서였다. 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집 앞에서 급히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났다. **(일단 47번의 5번 보기에서처럼 결사대원들이 밀회 시간을 어긴 ‘그’ 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란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옳은 설명이야. 또한 실제 정확한 시간 순서는 며칠 전-그날 밤/지금(2)-다음 날-지금(1) 순서가 되는 것이야.)**